

# 원희룡 장관, 중부지방 풍수해 대응 철저 당부

## - 8월 9일(화) 오전 1시 풍수해 종합상황 점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9일(화) 오전 1시 풍수해(호우) 관련 피해 상황, 복구 현황 및 교통 소통상황을 보고 받고, 국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.
- 8월 8일 21시 30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)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(비상 2단계)하였다.
  - 8월 8일 22시 현재 서울, 인천, 경기(평택, 안성 제외), 강원(철원)은 호우경보로, 경기(평택, 안성), 강원(원주, 횡성 등)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.
- 도로는 국도 3호선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일원 절토사면 토사 유실(24개소)로 통행이 차단되었고,
  - 철원방면 편도2차로 7km 구간의 통행을 차단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, 8월 8일 20시에 배수 작업 등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다.
- 철도는 경인선 오류동역 선로와 경부선 금천구청역 선로가 침수되어 각각 8월 8일 22시 45분, 8월 9일 00시 02분에 복구 작업을 완료하여 운행을 재개하였다.
  - 항공은 현재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- 원 장관은 “폭우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, 철도, 항공 등 각 분야에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” 고 당부했다.